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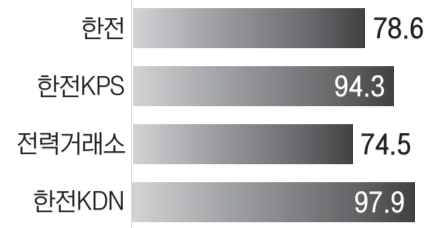
전력공기업 중기 상생 노력 눈에 띄네

한전 78.6% 3조·한전KDN 97.9% 873억 중기제품 구매
한전KPS 94.3% 등 법정의무비율 50% 넘어 매년 늘어나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전 그룹사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은 법정 의무 구매율인 50%를 매년 넘었다.
혁신도시 최대 규모 공기업인 한전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구매액 4조555억원의 78.6%에 해당하는 3조1467억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했다.
한전의 중소기업 구매율은 2014년

69.1%에서 2015년 70.4%, 2016년 70.6%, 2017년 72.1%, 2018년 73.3%로 매년 오르고 있다.
구매 품목은 물품·공사·용역 부문으로 전기공사 감리용역, 변압기, 전선,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이 포함됐다.
올 8월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의 중소기업 구매율은 94.3%에 달했다.
한전KPS는 총 구매액 2046억원 가운데 1929억원 어치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했다. 지난 2015년 한전KPS는 전년 구매율(82.1%)보다 높은 85.5%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83%로 구매율이 떨어졌다. 하

■혁신도시 전력공기업 중기 구매율 (단위:%)



*법정 의무비율 50% (산자위 국감자료)
지만 2017년부터는 84.2%, 2018년 86.6%, 2019년 8월 94.3%로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비영리 특수법인인 한국전력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구매율이 낮았지만 마찬가지로 법정 의무비율을 넘겼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1~8월 195억원의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면서 74.5%에 달

하는 145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샀다.
다만 전력거래소의 중소기업 구매율은 2015년 70.5%, 2016년 72.8%로 오름세였지만 2017년 65.4%로 떨어졌다. 이듬해에는 70.4%로 반등한 뒤 올해는 74.5%로 구매율을 끌어올렸다.
한전KDN의 중소기업 구매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7.2%→94.2%→92%→92.9%→97.9%를 보였다. 올해 1~8월 한전KDN은 873억원 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연도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인식(오른쪽 두번째) 사장이 15일 장흥 친환경에너지보급 어가를 찾아 점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현장 점검

지원 어가 등 방문 격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5일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어촌을 방문해 '친환경에너지보급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김 사장이 공사 장흥지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지역-해수열 등을 통해 농어가의 생산비절감과 소득증

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장흥권역 사업은 약 6억원의 사업비로 해수열을 통한 난방비 절감과 양식환경 개선으로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원어가를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어민과 직원을 격려했다. 그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통해 양식어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주부대상 농업농촌 체험교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15일 본사에서 혁신도시 인근 주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부 농업농촌 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주부 농업농촌 체험교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연 1~2회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홍보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돼지고기 섭취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전에는 최병익 교육원 전문교육과정의 '문제로 풀어보는 농식품 정책'과 이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사무관의 '국민이 알아야 할 농촌정책' 강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김치타운을 찾아 김치박물관을 관람하고 김치 담그기 체험 등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올해 3만여 명에게 325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일부 소비자들과 농업인이 교육 대상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에너지 기업 동반성장 간담회 한전KDN은 15일 나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2019년 하반기 에너지ICT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신생기업·2차 협력기업 10곳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KDN 제공)

한전, 에너지밸리 조성 4년 투자 실행률 57%

협약 기업 360곳 중 206곳 투자액도 29.2% 머물러

나주 혁신도시 일원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이 시행 4년이 지났는데도 투자를 이행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빛가람에너지밸리에 투자를 실행한 기업은 360개 가운데 57%인 206개뿐이었다.
투자금액도 당초 계획한 1조5026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382억원

(29.2%)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창출은 협약한 9012명의 23.8%인 2146명이며, 현지 채용인원은 881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적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투자 기업을 위해 예타형 이자 지원제도를 운용하는데 땅만 사들이고 실제 투자는 미룬 기업에도 똑같은 혜택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127개 기업 가운데 27개는 토지 매입 후 설비를 구축하지 않거나 사무실만 임대한 것으로 국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창업-벤처기업을 유치하고자 만든 투자펀드의 지원을 받은 30개 기업 중 협약 기업은 3개에 불과했다.
협약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전체 투자액의 8.8% 뿐이었다.
'에너지밸리펀드'와 '빛가람펀드'의 경우 각각 광주-전남 이전 예정 기업에 50%와 60%까지만 투자하면 돼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빛가람에너지밸리에 한하지 않고 광주-전남 전체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에너지산업과 디지털의 결합' 에너지밸리포럼

조항희 과학정책연구원장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강조

(사)에너지밸리포럼(대표 이재훈)은 15일 오전 7시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정례포럼을 열고 조항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23번째 열린 이번 포럼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허용호)이 공동 주관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협력사 및 에너지 관련 기업과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원장은 '디지털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와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에너지산업 등 기업 환경에 미치

는 미래 '메가 트렌드'로 ▲인구증가와 고령화 ▲세계 연구개발비 증가 ▲무선통신 확대와 인터넷 접속 수 증가 ▲기후변화 ▲중국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인도의 부상 ▲글로벌 정책, 무역전쟁 등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디지털과 연계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와 제품변화를 이끄는 원천"이라며 "이러한 디지털화는 생산자 입장에서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전환, 가시화화 스마트화를 통한 운영 최적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조화로운 연계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등 미래의 변화를 시도하는 세계의 동향을 해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광주 승의중 방문 교직원과 대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16일까지 광주 승의중 등 4개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과 대화시간을 갖는다.
사학연금은 사전 참여신청 응모를 통해 당선된 4개 학교를 찾아가 '지금, 들으러 갑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광주시 남구 승의중을 방문해 교직원 50여 명의 의견을 수렴했

다. 사학연금은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이중훈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소통 프로그램은 교사의 생생한 현장 소리 수집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교직원과의 소통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